

자돈(仔豚)의 포육법(哺育法)



곽 중 형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1. 자돈(仔豚)의 포육법(哺育法)

1) 자연(모유) 포육법

돼지가 새끼를 낳아 제 새끼를 기르는 것은 동물의 본능이며 모성애이다. 모돈(母豚)은 자기 새끼를 체취에 의하여 식별하고, 일상 동작도 신중을 기해 애육(愛育)하는 것은 사람에게 못지 않으나, 관리자의 정성과 기술로서 그 모돈이 자돈을 100% 완전히 기르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1)포유두수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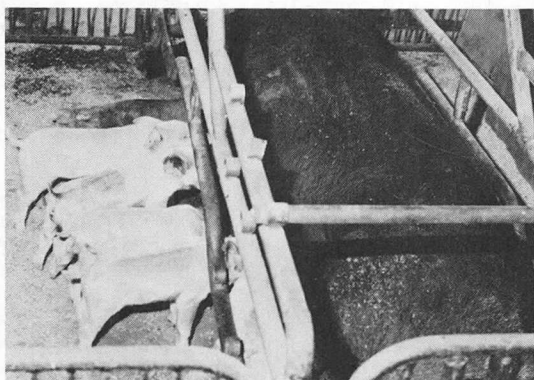
한 배새끼의 마릿수는 모돈의 연령 등에 따라 다르나, 평균 백색종은 10~14두, 유색종은 8~12두로 때에 따라서는 15두 이상 일때도 있지만, 전부 포육시키면 육성에 실패하는 수가 많으니 유두수 및 사료의 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당한 포육두수를 결정해야 한다. 적당한 포육두수는 대개 그 모돈의 체중 20kg에 대하여 1두가 알맞다.

그러므로 모체가 완숙하여 비유능력이 왕성한 것은 10~12두 내외, 초산(初産)이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모돈은 8두 정도로 제한하여 생시체중이 0.8kg 이하인 것은 당초에 도태하는 것이 현명하다.

(2)포유의 요령

갓난새끼는 사지(四肢)가 극히 불안정하고 거동이 민활하지 않아 모돈에 의하여 압사(壓死)되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이때에 관리자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데, 바구니 또는 상자를 넣어 새끼를 수용하고 2~3시간 마다 모돈의 분·뇨를 손에 발라서 새끼돼지를 들어 내어 포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신생자돈은 처음 2~3일간은 각기의 유두를



정하는데 강장(強壯)한 것은 중앙부로부터 흉부에 가까운 유두를 약소(弱少)한 것은 후방의 비유량이 적은 유두를 차지하게 됨으로 약소돈을 도와서 중앙부위를 차지하도록 하여 동복자돈이 균일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중대한 요결(要訣)이다.

어미돼지가 새끼돼지에게 젖을 먹게하는 수유(授乳)의 간격에 있어 분만 당일은 부정(不定)하나 2주간 까지는 평균 60분 내외로 점차 길어져 이유기가 되면 86분 정도가 된다.

포유시간은 분만 당일 평균 8분 내외이나 그 후 점차 짧게 되는데 큰 차이는 없다.

수유회수(授乳回收)는 생후 3일째 1일 24회, 1주일은 평균 22회 정도되며, 자돈의 1일 포유량은 체중 1kg당 분만 당일은 373g, 3~7일은 316~319g로서 이유 전일은 31g로 감소되며, 전기간을 통하여 평균 145g이다.

자돈 1두 1일 평균 포유량은 대체로 분만 당일은 400g 내외이나 10~20일간은 700~800g로 그 후 점차 감소된다.

모돈에 따라 수유를 꺼려하는 것이 있는데, 복부를 가볍게 문질러주면 즐겨 옆으로 눕게 되며 조교(調教)토록 하면 된다.

(3) 이자(異子) 포육법

모돈이 분만후 산욕열 등으로 비유가 되지

않는다던가 또는 산자수가 모돈의 유두수보다 많을 때 같은 시기에 분만한 다른 모돈에 이자(異子)하여 의탁포유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대개는 2~3일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잘 받아들인다.

돼지는 색채에 대하여서는 둔감하나 냄새는 극히 예민(銳敏)한 가축으로 이자를 다른 모돈에 붙일 때는 유모돈(乳母豚)의 뇨(尿), 유즙, 부고 등을 자돈의 몸에 바른다면 문질러 체취를 같이하여 야간 취침 중 유모돈의 자돈이 자는 가운데 넣어 준다.

2. 인공유(人工乳)의 이용

모돈이 새끼를 유두수 이상으로 낳는다든가 모돈이 불의의 사고로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인공포유의 필요성이 생기며, 계획적으로 자돈을 조기이유(早期離乳)하여 암사나 하리 등에 의한 소모를 적게 한다. 모유에 의한 모체의 소모를 막으며, 모돈의 교배간격을 빠르게 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도모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다.

(1) 인공유의 종류

ㄱ) 인공유A (예, 갓난돼지 I : 금성사료) : 체중이 3~4kg(생후 약10일) 정도에서 급여하기 시작하여 5~10kg(생후 약30일)까지 쓰여지는 것으로 조단백질 21.0% 이상, TDN 80% 이상, 조기이유의 경우 많이 쓰여지며, 모유가 풍부한 경우는 이용기간이 짧다.

ㄴ) 인공유B (예, 갓난돼지 II : 금성사료) : 체중이 10~15kg 정도에서 급여하기 시작하여 30kg(생후 60~70일) 정도까지 급여하는 인공유로 조단백질 20.0% 이상, TDN 8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다.

표1. 인공유의 표준급여 일량(g)

일(日) 종류	생 후 3 주	생 후 4 주	생 후 5 주	생 후 6 주	생 후 7 주	생 후 8 주	생 후 9 주	계
인공유 A 중형종 대형종	150 250	150 200						2.1kg 3.5
인공유 B 중형종 대형종		150 200	450 600	600 750	750 900	850 1,050	1,000 1,200	26.6 32.9

(2)인공유의 급여량

인공유는 원칙적으로 부단급여하나, 개체, 품종에 따라서 급여기준량은 차가 있다. 일반적인 급여량을 보면 표1과 같다.

인공유A로 부터 B로 교체하는 것은 첫날은 7:3, 제5일째는 5:5, 제7일째는 3:7, 제10일째는 전량을 바꾸는 것이다.

3. 포유돈의 취급 및 관리

신생자돈에게 초유(初乳)를 먹이면 대황다갈색(帶黃茶褐色)의 태분을 배출하며, 2~3일 지나면 체구가 쭉뻳져 차차 사지가 안정하게 된다. 1주일 이 지나서 맑고 온난한 날은 운동장에 내어 자유로히 일광욕을 시키며 신선한 표토(表土)를 채식토록 하는것이 좋다.

포유자돈의 성장은 모돈의 비유능력에 따라 좌우되는데, 통상 15~20일이 되면 모돈의 사조(飼槽)를 찾는데 이때부터 자돈에게 먹이를 먹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유치의 절제는 분만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견치(犬齒) 또는 흑치(黑齒)라고도 하는데 절치하면 모돈이 수유시 유두의 손상을 막는다. 또한, 자돈의 빈혈방지로서 철분(鐵分)을 공급해야 하는데, 자돈이 생후 보유하고 있는 철분은 약 50mg로 성장에 따라 철분이 모유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필요량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1일 요구량은 7~10mg로서 별도

로 공급해야 하는데 생후 3~4일령에 100mg과 14일령에 100mg의 철분을 새끼돼지의 엉덩이 안쪽 깊숙이 근육주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4. 이유(離乳)의 방법

이유방법은 생후 30~35일 자돈의 체중이 9~10kg 전후일때 다음의 요령으로 하는 것이 좋다.

포유자돈은 인공유(人工乳)를 먹도록 하여 거세(翁)의 상처가 치유되면 계획적으로 모돈의 급여량을 절감하여 유방의 건학(乾涸)을 촉진한다. 이유예정일 3일전에 모돈의 급여량을 반감하며, 전일에는 1/3량 이하로 하고, 이유당일은 청초와 물만을 준다.

한편, 자돈에게는 부단급여기에 인공유A를 충분히 주어 될 수 있는 한 이유예정일의 2, 3일전부터 주간은 모돈과 자돈을 떼어 놓고 수유하며 야간만 모돈과 같이한다. 이유당일은 아침을 먹이기 전에 모돈을 떨어진 돈방 또는 방목장에 유도한다. 자돈은 그대로 같은 돈방에 동복자돈 전부를 그대로 두고 인공유를 충분히 준다. 7~10일후 육성돈사 또는 적이한 돈사에 이동하면 되는데 대개 이때쯤 체중은 30~35kg 정도가 된다. *